봉선사 '운허체 현판 제막'

6월 13일, 산문 앞서 현판식 거행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 담겨
"운허 서체·봉선사 정체성 계승"
월운 스님 원력 기린 기신재도

남양주 봉선사=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산문을 금단청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중흥조 운허 스님의 서체를 집자해 제작한 현판을 새롭게 올리며 교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을 다짐했다. 또 한글대장경 완간에 평생을 바친 월운 대종사 입적 3주기를 맞아 기신재를 봉행하고 역경 불사의 원력을 되새겼다.

봉선사는 6월 13일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 현판 제막식과 월운 대강백 3주기를 추모식을 거행했다.

새 현판은 봉선사 중흥조 운허 스님의 친필로 만든 서체인 '운허체'를 집자해 제작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다와 같이 깊고 숲처럼 무성하다'는 뜻을 담은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을 새겼다.

이번 산문 건립과 금단청 불사는 2022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약 4년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이 투입됐으며 티움건축사사무소의 설계와 아정문화재의 시공, 장기웅 단청장의 작업으로 완성됐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6월 13일 '교해선림 대본산 운악산문'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기념사에서 "운허 스님의 서체를 연구해 현판을 모신 것은 봉선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선센터 건립 등 포교와 치유의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과 최현덕 시장 당선인 역시 축사를 통해 봉선사가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길 기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판식에 이어 청풍루에서는 '월운당 해룡 대강백 시적 제3주기 기신재'가 봉행됐다.

기신재에서는 월운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됐으며 스님의 역경 원력을 계승하기 위한 법보 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운허 스님이 생전 작성한 '이산혜연선사 발원문'과 월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원 스님이 번역한 '격외염롱문'.

이날 봉정된 법보는 운허 스님이 우리말로 옮기고 친필로 남긴 '이산혜연선사 발원문'과 정원 대종사가 번역한 〈격외염롱문(格外拈弄門)〉이다. 특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은 운허 스님이 1950년대 초 해인사에 머물던 시절 번역한 것으로, 현재 전국 사찰에서 널리 독송되는 귀중한 자료다.

한문과 함께 쓰여진 발원문은 1969년에, 한글로만 쓰인 발원문은 1970년에 운허 스님이 손수 작성했다. 친필로 작성된 1969년 발원문은 운경 스님과 정수 스님을 거쳐 지난 4월 7일 봉선사 문중 '향림회'에 기증되며 세상에 알려졌으며, 1970년 발원문은 큰법당 낙성을 기념하여 작성된 것으로 월운 스님이 간직해 오던 친필본을 영인했다.

월운문도회장 철안 스님은 "발원문과 〈격외염롱문(格外拈弄門)〉을 군법당 등 대중에 널리 보급해 어른 스님들의 역경 포교 정신이 가정마다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의 법석에서는 월운 스님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조실 부림 밀운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월초·운허·월운 스님으로 이어진 한글대장경 완간은 불교사에 길이 남을 대공덕"이라며 "어른 스님들을 기리는 '팔만대장경 번역 완간 기념관'을 건립해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법사·임허사, 동국대에 '장학금'



포항 원법사(왼쪽)와 임허사가 동국대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원법사, 9번째 지미불 장학금
6월 17일 임허사도 1000만원 후원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와 임허사(주지 철우 스님)가 대학생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장학(이하 지미불)'에 잇따라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원법사는 이번이 아홉 번째 전달로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원법사는 6월 15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포항 원법사 지미불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과·법과·약학대학 학생 30명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1년 첫 후원에 이어 이번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해운 스님은 "오늘 장학금은 학생들에 대한 원법사의 믿음이자 기도"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임허사도 6월 1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임허사 지미불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학생 10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철우 스님은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것을 다시 나누고 싶은 사명감이 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지운 기자

생명나눔, 백혈병 환자에 치료비 300만원 지원

6월 12일, 법인 사무실서
혜수 스님 "쾌유 한마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 나눔' 가치를 실천했다.

생명나눔은 6월 12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손소영(가명·53세) 씨에게 '환자 치료비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기금은 생명나눔이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모연됐다.

6월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손소영 씨는 백혈병 투병 중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종양이 재발돼 항암제 처방과 면역기능 유지를 위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손 씨에게는 돌봐야 하는 두 자녀가 있다. 한 명은 중증 자폐를 앓고 있어, 자신의 치료비는 물론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치료비 전달에 함께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손 씨에게 격려를 전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스님은 먼저 "치료비를 전달받을 수 있는 인연이 돼줘 저 또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치료비는 물질적인 의미뿐 아니라, 부처님 뜻 속에서 한마음으로 환자분들의 행복과 건강 회복을 비는 마음에 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선원도 손소영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내겠다"고 응원을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6월 12일 서울 본부에서 손소영 씨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손소영 씨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살아 저도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손 씨와 함께 참석한 권지혜 태화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도 "치료비 지원 대상은 성인보다 아이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생명나눔이 성인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매월 1~3명의 환자를 선정해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생명나눔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뉴델리서 관절 수술

2024년 이은 2차 수술로
티베트 불교계 관심 확대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오랜 지병으로 알려진 무릎관절에 대한 수술을 뉴델리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8일 '라디오 자유 아시아(RFA)'는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공식발표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달라이라마의 근황에 대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의 오랜 주치의인 체탕 D. 사두창 박사는 수술 후 회복 중인 90세의 달라이라마를 대신해 뉴델리에서 영상 성명을 발표했다. 8일 달라이라마 공식 채널로 공개된 영상에서 사두창 박사는 "6월 제14대 달라이라마 존자가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2024년 뉴욕에서 받은 오른쪽 무릎 수술에 이은 추가 수술"이라고 말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는 건강하며 수술역시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티베트 안팎의 모든 티베트인과 달라이라마를 존경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이라마의 입원 소식에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회가 인도의 뉴델리, 다람살라, 라다크, 강톡, 문드곳 등 여러 도시에서 티베트 난민들과 현지 불교도들의 주최로 열렸다.

특히 오는 6월 말 장기간 방문이 예고된 라다크 지역은 특히 철야기도가 열리는 등 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6월 12일 오전 퇴원해 현재 뉴델리에 머물고 있으며 수술경과에 따라 다람살라로 귀환, 혹은 바로 라다크로 출발할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